

전남도 테슬라 유치전 뛰어들었다

아시아 2공장 유치 제안서 제출 재생에너지·원자재·연관산업 항만·부지 등 최적 입지 내세워

전남도가 재생에너지 생산 등 우수한 입지 여건을 내세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테슬라 기가팩토리 아시아 제2공장 투자유치 제안서를 제출,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생산량, 철강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터리 원료 및 자동차 부품 공급망, 수출입 항만, 100만~130만㎡(30만~40만 평)의 부지 확보 등 테슬라 유치가 최적지라는 입장이다. 현재 전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용량은 11.8GW로 전체 허가 용량(20.6GW)의 53.7%를 차지한다. 신안 8.2GW의 발전단지를 포함해 총 계획 용량 30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최대 재생에너지 공급 규모로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RE100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에 충분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연간 2000만 철강 원자재와 친환경 자동차용 초강도 경량강판 기가스틸 생산 등 테슬라가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이 가능해 산업 입지적으로 가장 우수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리튬솔루션 등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과 연계된 배터리(셀) 산업인프라를 갖춘 점도 강점이다. 전기차 생산에 사용될 고성능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고 이차전지 소재부품 제조, 전기차(EV)·에너지저장장치(ESS) 사용 후 배터리 평가, 기술고도화 및 상용화 지원 등 이차전지 연구개발에서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춰 이차전지 기업과의 연계망이 뛰어난 점도 매력 요소다.

여기에 광주 기아자동차와 광주글로벌모터스, 영광 세보모빌리티 등 3개의 완성차 업체가 있고 572개의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와 연계성이 높은 금속가공·조립에 특화된 다수의 철강기업이 있어 자동차 부품제조 현지화(RVC)가 가능해 자동차산

업 생태계가 우수하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전남은 연간 90만 대의 자동차 선적이 가능한 5만t급 4개 선석을 갖춘 광양항과 연간 30만 대의 자동차를 선적할 수 있는 목포신항만의 자동차 전용부두가 있어 아시아의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손꼽힌다.

특히 테슬라가 필요로 하는 100만~130만㎡의 부지를 확보해 적기 착공이 가능한 점도 전남이 최적지로 손꼽히는 요소 중 하나다. 또 전남은 최근 20년간 큰 규모의 지진 발생이 없어 안전지대라는 점도 강점이다.

우수한 인력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남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광주과학기술원 등에서 석·박사급의 연구인력을 비롯해 전남대, 조선대 등의 자동차 관련 학과가 있어 테슬라가 원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세계로 뚫어주는 전남 건설의 원년을 맞아 지역 산업 지형을 탈바꿈할 세계적 빅테크 기업인 테슬라를 유치하는데 전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소상공인 플라마켓 '어울림 장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모인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장소를 대어주는 플라마켓 '어울림 장터'가 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SNS 등으로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장터를 찾아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에 기부하면 내 이름 공연장 좌석 생긴다

고향사랑 답례 '네이밍 도네이션'

광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연장 좌석에 고향사랑 기부자의 이름을 부착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기부 답례품 중 하나로 '네이밍 도네이션'을 선정했다. 광주 문화예술회관 좌석(대극장 1527석·소극장 464석)에 10만원 이상 기부자 중 희망자 이름

이 생긴 명판을 부착해주는 방식이다. 기부자 본인은 물론 가족, 친지의 이름을 대신 붙여도 된다.

광주시는 사실상 전국 유일의 현물이 아닌 형태의 답례라는 점에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인 가치를 매기기는 어렵지만, 명판 제작에 3만원가량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10만원 기부 대비 30% 답례품이 될 수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광주 9개 답례품 가운데 네이밍 도네이션은 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 중 하나다. 나머지 답례품은 김치, 농축산 꾸러미, 우리밀 가공품, 쌀, 김부각, 일차류, 공예품, 광주상생카드다. 광주시는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이 끝나는 4월부터 명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김석용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장은 "현재 10년 동안 부착하고, 문화예술회관 객석이 모두 들어차면 다른 시설물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 여건상 특산품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특색 있는 답례품을 지속해서 개발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제67회 신문의 날 표어 공모합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제67회 신문의 날을 맞아 표어를 공모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부문: 제67회 신문의 날 표어
- 공모기간: 2023년 1월 6일(금) ~ 2월 28일(화) 18:00까지
- 공모방법: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공모신청서 작성
- 출품규격 및 출품 작수: 20자 이내, 개인별 2점 이내
- 시상내역
 - 대 상 1명 (상금 100만원과 상패)
 - 우수상 2명 (상금 50만원과 상패)
- 발 표: 3월 22일(수) 이후 수상자 개별 통보
- 시 상: 제67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 문 의 처: 한국신문협회, 02-733-2251/2
- ※ 공모 소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光州日報社

산·강에 골분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장례의향서 도입·화장로 확충

화장(火葬) 후 골분을 산·강·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된다.

현재 378기인 화장로는 2027년까지 430기로 확충되며, 사전에 자신의 장례 의향을 결정하는 제도인 사전장례의향서(가칭)도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했다.

특히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화장로 부족 사태로 지난해 3월 한때 화장률이 20% 감소해 국민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화장시설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378기인 전국 화장로를 2027년까지 430기로 52기 증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 대차식 화장로보다 화장 시간과 에너지가 절감되는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도 올해 검토하기로 했다.

산분장도 제도화된다. 현재 장사법에 묻는 개념의 매장, 화장, 수목장은 규정돼있지만 바다나 산, 강에 골분을 뿌리는 산분장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정부는 산분장 제도화를 통해 2020년 8.2% 수준이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 3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합뉴스

광주 저상버스 80대 추가 도입...전체 시내버스 38.8% 차지

광주시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저상 시내버스 도입·운행을 확대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45대)보다 대폭 늘려 올해 저상버스 80대를 새로 도입한다. 이 가운데 58대는 일반버스를 저상버스로, 22대는 노후 저상버스를 새 버스로 교체한다. 광주 저상버스는 지난해 전체 시내버스 1000대 가운데 330대에서 올해 388대로 늘어나게 된다.

광주시는 이번엔 교체하지 못한 차량은 사용 연

한을 1년 연장해 사용하고 2030년까지 100% 저상버스로 채울 예정이다.

대기 환경을 위해 65대는 천연가스(CNG), 10대는 수소, 5대는 전기 버스로 도입한다. 저상버스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고 차량 바닥이 낮아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 승객도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체해야 하는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경매, 대박물건 신안군 단독섬, 1월 16일 입찰
낙찰시 100억 가치 있음

단독, 공동입찰 하실 분. 오전경매.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금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1길 12-8)

대 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 물 1)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단층공장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채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곳) 4억5천만원
시보조금 7억 (공정등록 5년후 소멸)

*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

<p>판결 공시</p> <p>•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단961 강제추행</p> <p>• 피고인: 노진철</p> <p>위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p> <p>2022년 12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이종기</p>	<p>판결 공시</p> <p>•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459 공무집행방해</p> <p>• 피고인: 김경길</p> <p>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사실 중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p> <p>2023년 1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황혜민</p>	<p>판결 공시</p> <p>•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고경14 수산업법위반</p> <p>• 피고인: 유순준</p> <p>위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p> <p>2022년 12월 1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서효성</p>
<p>분할합병 및 주권재출공고</p> <p>게스 주식회사(이하 게스)와 광성산전 주식회사는(이하 올이라 한다) 2023년 01월 05일자 개최한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을 결의하고 그 결과(주) 게스 주식회사 전기공사(주)광주(00916)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주) 광성산전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주) 올(주)은 존속하며 합병 제330조의 5제3항의 출자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함으로써 본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본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2023년 1월 6일 -양도대상: 전기공사(주)에 광주-00916호 "게스" 주식회사 전라남도 장성군 전월면 나산동2로 53 대표이사 이병현 062-575-2955 "올" 광성산전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덕림1길 78-14 B동 대표이사 이계성 062-419-0011</p>	<p>해산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공고(1차)</p> <p>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자라는 2022년 11월 24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해산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2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산으로 인한 청산금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께서는 위의 기간 내에 회사의 본점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2023년 1월 6일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자라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영장로12길 37 청산인 이용장</p>	<p>71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p> <p>光州日報</p> <p>• 지역내대 북 구 • 동 266-1920 • 문 266-1960 • 특 525-3781 • 신 222-8171 • 향 571-7658 • 오 266-7801 • 용 433-1503 • 우 433-1503 • 남 673-6836 • 동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222-9054 • 중 222-8171</p> <p>남 구 • 남 부 673-6836 • 북 651-1833 • 동 선 673-6836 • 송 675-6805 • 진 671-7276</p> <p>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명 376-6511 • 동 암 603-0311 • 화 정 369-1625</p> <p>광산구 • 문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선 944-0444</p>
<p>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p> <p>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光州日報 광공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p> <p>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p>		